

채림 CHAE, RIMM

멀리에서 : From a distance



멀리에서 *From a Distance*

2019

목판에 옷칠, 삼베, 122x162cm

전시개요

전 시 명 : 멀리에서 : *From a distance*

작 가 명 : 채림 CHAE, RIMM

전시기간 : 2019년 7월 10일(수) - 2019년 8월 25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청담

문 의 : 02-3448-4575~6

출 품 작 : 평면 및 설치 총 52점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최고운 gowoun@hakgojae.com

02-3448-4575~6

홍 보

이지선 jen.lee@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90710-20190825 채림_멀리에서 : From a distance

1. 전시개요

학교재청담은 2019년 7월 10일(수)부터 2019년 8월 25일(일)까지 채림(蔡林, b. 1963~, 서울) 개인전 《멀리에서 : From a distance》를 연다. 채림은 전통 공예 기법인 옷칠과 자신의 주특기인 보석 공예를 통해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다. 그는 유망한 주얼리 디자이너로 출발하여 다수의 수상 이력을 가졌으며 옷칠을 연구한다. 채림은 작업을 통해 보석의 장식적 의미와 옷의 공예적 가치를 넘어서 순수미술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그는 대표적인 한국 전통 공예 기법을 작업세계로 끌어들이어 전통과 현대, 동구와 서구, 자연과 세공이 어우러진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학교재에서의 개인전 《Nature Meets Nature, Art Meets Art - 숲의 사색》(2017)에는 옷칠 위에 자개, 순은, 호박, 산호, 비취, 청금석과 호안석 등 전통 장신구에 주로 쓰인 보석들을 이용해

보석과 회화의 물리적 만남을 선보였다. 이번 학교재청담 《멀리에서 : From a distance》展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각 소재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에 집중하는 신작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작업은 보석 공예 없이 옷칠만을 이용한 회화 <멀리에서>(2019) 시리즈와 자개와 진주를 황동 가지에 올려 평면적으로 배열한 <비 온 후에>(2019)이다. 채림은 <멀리에서> 시리즈를 통해 옷칠 기법만으로 인상주의를 연상시키는 회화 작업을 시도한다. 맞은편에 자리한 <비 온 후에>는 그간 옷칠 바탕 위에 올렸던 보석 오브제를 지지체로부터 과감히 분리해 하얀 벽에 배열, 설치한 신작이다. 학교재청담은 이번 전시를 통해 채림의 보석 공예와 옷칠의 개별적인 아름다움과 순수미술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전시주제

큐레이터이자 평론가인 로버트 모건(Robert C. Morgan)은 채림의 작업세계를 가리켜 '조각 회화(sculpture painting)'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평면 회화 위에 주얼리 오브제를 부착하는 채림의 예술세계를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채림은 회화와 조각을 결합한 작업으로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작가는 이번 학교재청담 개인전을 통해 처음 선보이는 신작을 통해 조각과 회화를 과감히 분리하고, 각 재료와 장르에 한층 깊이 있는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회화를 칠하다

채림은 옷과 안료를 조합해 원하는 색을 만든다. 그리고 목판 위에 옷칠이 깊은 색감을 떨 때까지 수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옷칠은 나무에 수십 번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 특유의 빛깔과 광택을 만들어가는 전통 공예 기법이다. 방수와 방습 기능까지 갖춰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옷칠의 조색 작업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까다롭다. 또, 반복적인 칠은 작가에게 수행에 가까운 인내 및 노동력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그가 옷칠의 동시대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우리의 것과 근본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채림은 이번 전시의 대표작 <멀리에서> 시리즈를 통해 그간의 '보석 회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수 옷칠 회화를 시도한다. 보석의 장식성을 내려놓고 옷칠 특유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일견 인상주의 회화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작가가 사랑하는 제주도의 기억 속 풍경을 담고 있다. 한국화 특유의 여백과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마치 유화처럼 부드러운 색감을 지녔지만 옷질 특유의 매끄러운 표면을 자랑한다. 이 세련된 일련의 회화는 한국 미술 특유의 우아한 절제미와 동시대적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공을 설치하다

옷질 회화 <멀리에서> 시리즈에서 전통적 가치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작가는 평면적 설치 <비 온 후에>에서는 자신만의 미학을 보다 분명하게 추구한다. <비 온 후에>는 채림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설치 작품이다. 채림은 전통 보석 세공 기법에서 벗어나 자개와 진주를 마치 브로치처럼 정교하게 세팅한다. 한국 전통 보석 공예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것이다. 흰 벽에 드리워진 부드러운 연필 드로잉을 연상시키는 황동 가지의 그림자는 채림이 새롭게 실험하고 있는 조형 요소다.

<과수원 하늘>(2018~2019)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크기와 모양, 색이 제가품인 자개와 진주를 황동 가지가 살며시 움켜쥐고, 이를 다시 도금한 황동 프레임이 넝쿨과도 같이 감싸 안은 이 작품은 보석 세공만으로 이루어진 조각 작품으로, 벽 위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마치 드로잉처럼 회화적 멋을 더하고 있다.

멀리에서: From a distance

채림의 작품 속 주된 모티브는 숲이다. 작가는 종종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 '林'을 한자로 새겨 만든 낙관을 찍음으로써 이를 암시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인적이 끊긴 깊은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채림은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결, 짙은 숲의 향기, 쓸쓸하고 고적한 기운, 청량한 공기를 포착한다. 채림이 이렇듯 '자연을 노래하는 서정시'를 그리게 된 데에는 모네(Claude Monet)의 영향이 크다. 작가는 모네가 생전에 가꾸었던 파리 근교의 지베르니 정원을 방문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지베르니 정원은 모네의 <수련> 시리즈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식물을 연상시키는 조형 요소의 활용이다. 화면 곳곳, 덩굴과 나뭇가지를 연상시키는 선들이 서로 만나며 여러 표정을 짓는다. 이들은 덩굴이 뻗어 나가듯 반경을 넓혀가며, 전시장을 신비로운 숲속과 같은 분위기로 바꾼다.

채림의 작품 속 뻗어나가는 것은 비단 덩굴뿐만이 아니다. 채림은 옷칠과 보석 공예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채림은 각 장르의 명맥을 잇는 것보다는 전통을 배우되 이것의 미학을 동시대적으로 번역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작업의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작가는 전통 옷칠 기법을 공부하고 이를 모더니즘 회화로 풀어냈으며, 전통 보석 공예와 서구의 주얼리 세팅 기술을 접목해 자신만의 설치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가 자신이 사랑하는 제주의 풍경을 담고, 한국 전통 장신구에 사용하는 보석을 주로 사용하는 등, 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이렇듯, 채림의 작업세계는 전통에 뿌리를 둔 채 현대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구와 서구, 자연과 세공이 어우러지고 있다. 이번 학교재청담 《멀리에서 : From a distance》는 채림이 제시하는 전통에 뿌리를 둔 문화 혼종적, 동시대적 미학 속으로 관람객을 초대할 것이다.

3.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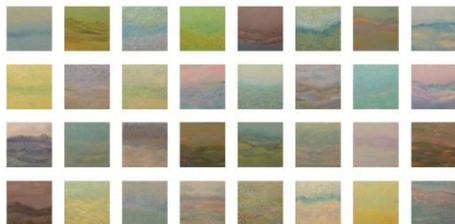


멀리에서 From a Distance

2019

목판에 옷칠, 삼베

122x162cm



멀리에서 From a Distance

2019

목판에 옷칠, 삼베

20x20cmx32

<멀리에서>(2019)는 작가가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아리랑 칸타빌레 Arirang Cantabile'의 일부이다. '아리랑 칸타빌레'는 한국의 각 지방별 특색을 옷칠로 담아내는 프로젝트이다. 채림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기억 속 제주도 풍경을 옷칠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옷칠을 반복하고 쌓아서 안개가 낀 듯한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옷은 유화와 달리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색이 무척 까다롭다. 옷칠 조색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채림은 이 작품을 통해 옷칠을 두텁게 구현함으로써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화면을 구현하고 있다.



바람의 색, 나무의 색 Colors of the Wind, Colors of the Tree

2018

목판에 옷칠, 삼베, 자개, 황동

162x122cm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채림은 여기서 한국적인 색채를 직선으로 쌓아가며 옷칠로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엷은 녹색을 띤 캔버스에 푸른색,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밤색, 주황색, 보라색 등 단청을 연상시키는 색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선'의 반복이 '면'이 된다. 이렇게 완성된 화면에 나뭇가지를 연상케하는 주얼리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회화와 조각이 조합된 작품을 탄생시켰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생동감과 자연의 향기가 가득한 평화로운 화면을 구현하고자 했다.



작은 꽃 Little Flower

2019

목판에 옷칠, 삼베, 자개, 진주, 실버

20x20cm

옷칠 특유의 아름다움과 깊이감을 작은 크기로 표현했다. 작가가 옷칠을 처음 시도했을 때는 은은한 빛깔과 매끈한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곤 했다. 그러나 <작은 꽃> 시리즈부터는 옷칠의 다양한 색채들을 쌓아올림으로써 각 색의 조화에 집중하고 있다.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만의 고유 색채를 서서히 드러내는 신비한 재료이다. 멀리서 보면 두터운 마티에르가 돋보이는 유화 작품 같지만, 다가가서 보면 유화와는 전혀 다른 은은하고 오묘한 색채와 붓 터치가 매우 인상적이다. 보편적으로 '옷칠'이라 하면 가구 공예를 연상하며 짙은 나무색을 떠올리지만 채림의 옷칠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색채를 띤다. 그 위에 올라간 보석 조형물은 햇살처럼 반짝이며 환상적인 따뜻함을 선사한다.



작은 꽃 Little Flower

2018

목판에 옷칠, 삼베, 자개, 진주, 22K 금도금 실버

20x20cm



과수원 하늘 Sky in the Orchard

2019

자개, 22K 금도금 황동

48(d)x10cm



과수원 하늘 Sky in the Orchard

2018

자개, 진주, 황동

48(d)x10cm



하늘 그리고 비밀정원 Sky and Secret Garden

2018

목판에 옷칠, 삼베, 진주, 22K 금도금 실버, 실버

58(d)x8cmx4

<과수원 하늘>(2018-2019)은 그동안 작업해오던 옷칠과 보석의 결합인 조형적인 회화에서 보석 세공 고유의 조형미에 집중한 작업이다. 과수원에서 바라본 풍경의 그리움과 추억에 대한 단상(斷想)을 구조물로 구현하기 위해 옷칠을 과감히 생략했다. 본 전시 주제와 맞게 '서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차가운 느낌의 금속을 피했다. 작업이 까다로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황동을 선택했다. 새싹이 돋아 하나의 꽃이 되고 나뭇가지가 되기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수차례의 용접 과정을 거쳐 완성시켰다. 마치 황동으로 공중에 드로잉을 하듯 작업한 것이다. 원형은 화합을 상징한다. 원형의 테두리에서 꽃인 듯, 나뭇가지인 듯 피어오르는 식물을 연상시키는 형상은 관람객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선사한다. <과수원 하늘>(2018-2019) 시리즈는 옥시다이즈드(oxydized)¹ 처리된 황동으로 작업한 근작과 옐로 골드를 도금한 신작으로 나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고 지는 자연의 생리에 집중했다. 이러한 여정은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채림의 작업실에는 작은 옥상 정원이 있다. 작가에 따르면 그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따라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작가의 상상에 의한 풍경이 그려진다고 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 본연에서 영감을 받아 색채를 옷칠로 표현하고 있다. 본 전시에서는 <하늘 그리고 비밀정원>(2018) 4 점을 일렬로 배치해 작가의 비밀정원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¹ 금속을 산화 처리해 골동품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

4. 작가소개

채림은 1963년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아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이화여대와 동 대학원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 우연한 기회에 보스턴 박물관에서 티아라(작은 왕관) 전시를 접한 것을 계기로 주얼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 뒤 채림은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 가기 시작했다. 웨어러블 아트(Wearable Art) 장르로 대담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작품을 해외 전시에 선보여 다수의 수상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채림은 주얼리가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금고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껴 작가로 전향하게 된다. 그리고 주얼리를 미술작품과 같이 벽에 설치하기 위해 그것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옷칠 지지체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보석 회화(Jewelry Painting)'를 구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 옷칠에 빠져든 작가는 매일같이 국내 최대 옷칠 생산지 원주를 드나들며 전용복장인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다. 끈질긴 연습과 작업 끝에 자신만의 질감 표현과 점묘법을 연상시키는 기법을 개발했다. 오늘날까지도 작가는 일본의 동경예술대학 칠예학과, 교토 우루시 센터 등을 다니며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채림은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 년 국제보석감정사를 취득했고, 국제앙드레말로협회와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의 회원이다. 2016 년 프린스턴 갤러리 (뉴저지, 미국), 갤러리 BDMC (파리), 에이블 파인아트 갤러리 (뉴욕) 등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연달아 개인전을 가졌다. 사치갤러리 (런던), 그랑팔레 (파리), 피어 94 (뉴욕) 등 국내외 우수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 및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아트 어워드 (피렌체, 이탈리아), 뉴욕 아트엑스포 (뉴욕),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제 30 회 일본 인터내셔널 펄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아시아 패시 어워드 (JDMI 시그니티, 홍콩)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연을 노래하는 서정시

김복기 (『아트인컬처』 대표, 경기대 교수)

1.

컨템포러리 아트는 '탈(脫)장르' 시대를 맞고 있다. 더 이상 '형식'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장르 고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시각 예술의 모든 형식, 이를테면 소재 재료 물질 형태 색채 구성 등의 정통적인 조형 요소를 전복시키는 작품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장르와 장르의 과감한 이종교배를 통해 작품 형식의 문제를 교란시키는 움직임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순종'의 우물에서 벗어나 '혼종'의 바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채림의 작품도 컨템포러리 아트의 문맥에서 보면, '혼성(Hybrid)의 예술'이라 부를 수 있다. 채림은 원래 보석디자이너로 출발했다. 그림에도 작품의 재료와 기법을 확장하고 표현 형식을 개방하는 꾸준한 천착을 거듭해, 마침내 독자의 작품 세계를 이룩해냈다. 그 조형의 요체는 옷칠로 '경작한' 지지체에다 보석 공예의 입체 조형을 융합하는 일이다. 외국의 어느 평론가가 채림의 작품을 두고 '보석 회화(Jewelry Painting)'라는 조어(造語)를 구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채림은 전통 옷칠로 작품의 지지체를 일궈낸다. 나전칠기 같은 전통 공예의 조형미에 착목한 것이다. 옷칠은 나무에 수십 번의 지난한 수공적 반복 과정을 거쳐 색채와 광택을 건져 올린다. 옷칠의 농도와 채도에 따라 화면은 천변만화의 표정을 드러낸다. 액체가 번져 흐르듯 유동적인 구성, 바람이 불듯이 속도감 넘치는 붓 터치, 청정한 수면처럼 매끈한 표면, 저 먼 기억 속의 풍경처럼 몽롱한 파스텔 톤, 안개가 낀 듯 경계가 모호한 스푸마토(Spumato)....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작가는 삼베를 화면에 끌어들여 마티에르 효과를 배가시킨다. 그 신비로운 뉘앙스는 원시 바다의 깊고 깊은 바닥 면이나 칠흑 같은 밤의 촉각, 아니면 이름 모를 행성의 표면을 떠올린다. 그 어느 것이나 자연(혹은 우주)의 감축모형을 연상시킨다. 사실 이 지지체만으로도 회화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해도 좋다.

채림은 이렇게 경작한 지지체의 발에 보석공예를 심고 키운다. 호박 산호 비취 등의 전통 보석뿐 아니라 터키석 청금석 아과마린 등의 천연보석이 세팅된 실버를 지지체와 조응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통 자개로 수놓은 작품이 매력 덩어리다. 자개는 은은하게 빛나는 조개껍데기의 표면 효과가 특징이다. 어린 시절 우리의 안방에 들어앉아 있던 자개농의 추억을 불러내 보라. 빛을

내려 받은 자개가 뿜어내는 신묘한 색채! 그것은 감상자의 시점 이동에 따라 다른 자태를 드러낸다. 또한 22K금도금 실버로 빚어낸 문양도 예사롭지 않다. 그 문양은 해 산 물 소나무 구름 불로초 사슴 거북 학 같은 십장생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디자인으로 보인다. 보석 문양이 자연의 축소판 같은 채림의 화면에 들어앉으면 생명 탄생, 우주 질서의 표상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옷칠의 지지체와 보석의 만남. 이 만남은 실로 다양한 조합으로 전개된다. 꽃밭 위를 살포시 날아가는 나비로, 연못의 수면 위를 떠도는 꽃잎으로, 길가에 가지런히 늘어선 풀숲으로, 녹음 속의 무성한 나뭇잎으로, 바람 부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의 무리로, 일출에 고요히 피어오르는 안개로, 저 멀리 산봉우리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성운(星雲)으로....

채림은 감성이 흘러넘쳐나는 문학소녀처럼 한 편의 서정시를 써내려간다. 자연을 노래하는 서정시! 이 고요한 명상의 세계 앞에 서면, 우리는 저 깊은 내면으로 끝없이 또 끝없이 미끄러진다. 정신세계로의 깊은 투사는 결국 수수께끼 같은 우주와 우리 존재의 신비한 빛으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생명의 존귀함을 맛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3.

채림의 예술은 진화하고 있다. 보석공예를 입체로까지 발전시킨 작품도 발표하고 있다. 보석 공예의 체적(體積)과 색채에 대한 인식을 전도시켜 조각, 설치작품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황동으로 용접한 최근작 <과수원 하늘>은 보석 공예의 장식성을 버리고 상큼한 '공간 드로잉'으로 치달은 작품이다. 이 지점에 이르면 채림의 작품에 더 이상 공예나 디자인이란 말을 적용할 필요도 없으리라. 이렇듯 보석디자인에서 출발한 채림이 도달한 세계는 실로 놀라운 파격의 성과를 얻고 있다.

채림의 예술은 여전히 가열한 조형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전통을 딛고 그 전통을 넘어 서고, 지금 여기 현대 속을 부딪치면서 그 전통을 현대로 이어가는 일이다. 그 과제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기 위해서는 작품이 '보석+회화'라는 물리적 결합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공예/회화라는 장르 문제뿐만 아니라 컨템포러리 아트를 둘러싼 실로 가치 있는 비평 담론들이 잠재해 있다. 전통/현대, 동도(東道)/서기(西器), 평면/입체, 일루전/오브제, 자연/문명, 과거/현재, 순수/실용.... 작가 채림이 바로 이 이항대립(Binary)의 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전복 해체 탈구축 종합의 조형적 전개를 지켜보는 일이 마냥 흥미롭다.

6. 작가약력

채림

- 1963 서울 출생
- 1986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198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 2009 국제보석감정사 취득
-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 회원
-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 2019 **멀리에서 : From a distance, 학교재청담, 서울**
- 2018 빛으로의 여정, 숲으로의 여정,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7 Nature Meets Nature, Art Meets Art – 숲의 사색, 학교재, 서울
 숲의 노래,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숲의 노래, 에이블 파인아트 갤러리, 뉴욕
 숲에서 나를 만나다, 라우갤러리, 경주
- 2016 공명, 갤러리 BDMC, 파리
 프린스턴 갤러리, 프린스턴, 미국

단체전

- 2019 나무, 울곧·움깊음·아름다움, 경운박물관, 서울
 제 3 회 국제 비엔날레 드 아르테 바르셀로나, 유럽 모던 아트 뮤지엄, 바르셀로나, 스페인
 타이베이 당다이, 난강 전시 센터, 타이베이
- 2018 스크 마이애미 아트페어, 마이애미 비치, 미국
 아쿠아 아트 페어, 아쿠아호텔, 마이애미 비치, 미국
 아트룸스 페어 서울, 리베라 호텔, 서울
 아트 타이베이,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타이베이
 텍사스 컨템포러리, 조지 브라운 컨벤션센터, 휴스턴, 미국
 아트 산타 페, 산타 페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샌타페이, 미국
 칸 비엔날레, 칸 팰리스, 칸, 프랑스
 뉴욕 컨텍스트 아트페어, 뉴욕
 뉴욕 아트엑스포, 피어 94, 뉴욕
 베네치아 아트 엑스포, 스키투라 그란데 델라 미세리코르디아, 베니스, 이탈리아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 2018 평창올림픽기념전시회 「칠예 2 인전」, 주일 한국문화원, 도쿄
-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센터, 싱가포르
- 2017 아트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가오슝, 대만
- 위드아트페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서울
- 아트 타이베이,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타이베이
- 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 서울
- 스타트 아트페어, 사치갤러리, 런던
- 아트 제주, 하얏트 리젠시, 제주
- 아트 부산, 벅스코, 부산
- 뉴욕 아트엑스포, 피어 94, 뉴욕
-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 2016 프랑스-독일 박람회, 쿤스트라움 99, 쾰른, 독일
- 살롱 아트 쇼핑,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 아트 3F, 브뤼셀 엑스포, 브뤼셀
- 파리와 런던의 따라지 인생, 5th 베이스 갤러리, 런던
- 아트 3F, 툴루즈 전시공원, 툴루즈, 프랑스
- 파리 - 뉴욕, 스페이스 인 아트, 뉴욕
- 뉴욕 아트엑스포, 피어 94, 뉴욕
-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 한·인 현대미술 - 한국의 열정, 인도를 만나다, 인도문화원, 뉴델리, 인도,
- 2015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 국제문화유산박람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 DK 2015 - 코리아 주얼리 디자인, 킨텍스, 고양
- 한·중 문화예술제 - 영웅 안중근, 하얼빈의 꽃으로 피다, 하얼빈, 중국
- 2014 살롱 데 앙데팡당, 그랑팔레, 파리
- 필라 코리아 세계우표전시회, 코엑스, 서울
- 2013 청와대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청와대사랑채, 서울
- 세계패션페어, 콘래드, 서울
- 2012 청와대사랑채 주얼리 문화전, 청와대사랑채, 서울
- 2011 세계패션대상 - 포멀 스타일 갈라, 그랜드하얏트, 서울
- 2010 G20 영부인을 위한 포멀 스타일 갈라, 그랜드하얏트, 서울
- 2009 서울 디자인 올림픽 -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주얼리 디자인, 잠실종합운동장, 서울
- 한국금속공예 현대작가 100 인전, 갤러리 각, 서울
- 2008 포멀스타일 포럼 (한국포멀협회 주최), 호텔리츠칼튼, 서울
- 2007 베라 왕 & 로베르도와 주얼리 패션쇼 (까사 & 동아 TV 주최), 한국해비타트, 서울
- 2006~16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원전

수상

- 2018 감독상, 아트엑스포 뉴욕, 뉴욕
레오나르도 다 빈치 아트 어워드, 보르게세 팔레스, 피렌체, 이탈리아
- 2017 솔로 어워드, 뉴욕 아트엑스포, 뉴욕
- 2016 금상,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대상, 제 15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5 유진 폰트네 상, 국제문화유산박람회 – 국제앙드로말로협회, 카루젤 뒤 루브르, 파리
선정,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금상 (중소기업청장상), 제 14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4 금상 (중소기업청장상), 제 13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13 입선, 제 5 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행정자치부, 서울
선정, 굿디자인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입선, 제 32 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디자인부문, 한국미술협회, 서울
특선, 제 9 회 국제귀금속장신구대전,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서울
- 2009 입선, 제 44 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 2008 특선, 제 27 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디자인부문, 한국미술협회, 서울
특선, 제 13 회 경기디자인전람회, 코리아디자인센터, 성남
금상 (특허청장상), 제 7 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
- 2005 특별상, 제 30 회 일본 인터내셔널 펠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입선, 제 30 회 일본 인터내셔널 펠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
- 2001 아시안 패시 어워드 워너, JDMI 시그니티, 홍콩
동상, 제 28 회 일본 인터내셔널 펠 디자인 콘테스트, 미키모토, 도쿄